韓國經營科學會誌
第23卷 第4號
1998年 12月

전자민주주의 매체의 효과 분석*

오 재 인**

An Analysis of the Media Effectiveness for Electronic Democracy*

Jae In Oh**

Abstrac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analysis of electronic democracy media, although electronic democracy, if adopted in Korea,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political culture to a large extent. This research is to compare electronic democracy media, such as internet, cable TV, teleconferencing, fax, and ARS and suggest recommendations on the successful introduction strategy of electronic democracy in Korea.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yields research findings, such as the fact that internet will be the most effective medium and a strategy for popularizing internet needes to be developed in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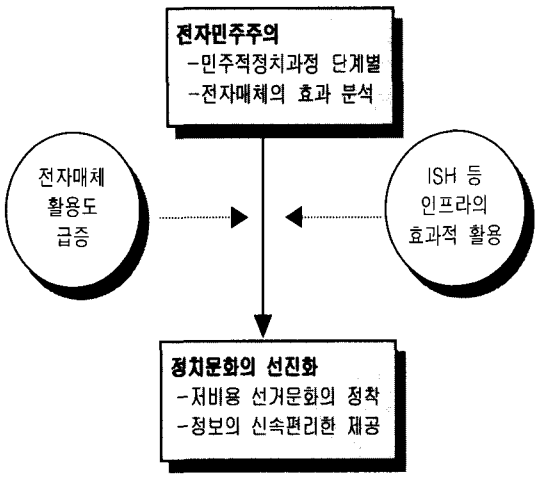
1. 서 론

지난해 대선에서는 TV 등과 같은 매체의 활용으로, 유권자들을 여의도광장이나 보라매공원에서 안방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유권자들은 대규모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없이 전자매체 특히 TV를 통한 토론, 연설, 광고를 시청 또는 참여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ARS를 통하여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후보자의 진정한 정치역량보다는 임기응변력 등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전자매체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이 우리 정치문화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를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전자민주주의의 역할

더구나 21세기에 구축될 정보초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효과적인 전자매체를 유권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며[12], 이는 정치과정을 정부와 유권자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패러다임의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10]. 더구나 신세대의 전자매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림 1] 좌측 참조), 21세기에는 정보초고속도로 구축과 맞물려 전자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세계 도처로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될 것이다[20]. 따라서 정보화로 인하여 민주적 정치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데 정보기술이 대의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19],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자유, 평등, 인민주권론 등이 잘 구현될 것인가? 정당, 대의제도, 법치주의, 선거, 민주적 권력구조, 언론 및 비판의 자유는 유지될 것인가? 하는 등도 궁금한 사항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컨데[2],[4],[22]),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TV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가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전자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전자매체가 선호되고 있으며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성공적인 전자민주주의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인터넷, PC통신, CATV 등과 같은 전자매체 중에서 어느것이 현재 효과적이며 향후에는 어느것이 바람직한가를 탐구하여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도입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선호도가 상이한가도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추세 분석도 병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연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Ⅳ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이 Ⅴ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진국에서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헌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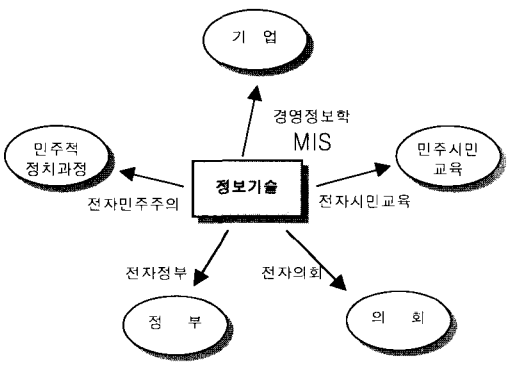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전반적으로 정보인프라를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매체를 출현시킴과 동시에 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7]. 이에 따라 전자민주주의도 당연히 급진전되게 되는바, 본 장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도래를 살펴본다.

2.1 정보기술의 역할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속도는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1900권 정도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을 단 3장의 CD에 담을 수 있다. 또한 각 가정마다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정보초고속도로의 구축계획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8]. 이렇게 정보화사회가 급진전되면 인터넷, PC통신, CATV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원격교육, 원격통신, 원격회의,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이 널리 보급될 전망이다.

TV, ARS 뿐만아니라 인터넷, CATV 등과 같은 정보기술을 민주적 정치과정에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2],[3],[22]). 즉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면 정치인은 저비용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유권자들을 접촉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 또한 손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된다. 전자매체의 쌍방향성은 유권자와 정치가, 유권자 상호간에 신속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5].

정보기술을 통하여 다중은 동시에 실시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물리적인 장벽과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어, 21세기에는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이 가능하리라고 성급히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18]. 오늘날 정보화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정보기술인데 ([그림 2] 참조), 이를 중심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전자민주주의 위상

기존 민주주의 방식에 인터넷, PC통신, CATV 등과 같은 정보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전자민주주의로 승화된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Paperless로 탈바꿈할 때 전자정부가 구현되며, 전자의회, 전자시민교육 등도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내용은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연구방법은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원용하기로 한다.

2.2 전자민주주의

현재까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된 문헌은 없다. 다만 Arterton[4]이 tele-democrac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신매체의 사용에 의해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Toffler[19]는 미국 헌법 비준 당시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직접 민주주의가 공중의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견제하고 유예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둘째 당시의 정보전달 능력으로는 의견의 집약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Toffler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조건이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민의 즉흥적이고 과다한 감정적 반응의 문제는 여러 가지 조치나 교육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 역시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정책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보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학자들의 제안이 이미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정보기술의 민주적 잠재력

Laudon [9]	정보기술을 그 기술 자체가 지닌 민주적 잠재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 자료변형기술·····> (data-transforming technology) • 대중참여적 기술·····> (mass-participation technology) • 상호작용적 기술·····> (interactive technology)	관리적 모델의 민주주의 (managerial model of democracy) 민중주의적 민주주의 (populist democracy)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pluralist democracy) 상호작용적 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이 가장 크며, 이는 시민기술(citizen technology)로서 작용한다.
Toffler, [19]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영역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적인 능력은 막대한 양의 귀중한 정보에 관해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케 함	단순히 직접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
Naisbitt [13]	미래를 예측한 10대 조류중 두개를 정치영역에 관하여 다룸 1)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2)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바뀌는 추세	기존에는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경영체계가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의 제도를 수평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
Dahl [6]	현대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민주주의의 강화방안에 관해서 논의 • 정보제공 컴퓨터를 포함한 상호작용적 원격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제를 보편적으로 쉽게 제공 • 미니 시민단(minipopulus) 기존의 여론조사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낮고 식견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니시민단을 구성한다. 이는 원격통신망의 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며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준유토피아적(quasi-utopian)' 민주주의의 구상에서 컴퓨터와 원격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정치적식견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그들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
Arterton [4]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원격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논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매개하는 통신기술 • 텔레비전 방영의 전화프로 (Televised Call-in Format) • 반송우편투표(Mail Back Ballots) • 상호작용의 케이블 텔레비전 (Interactive Cable Television) • 텔레비전 회의와 비디오 회의 (Teleconferencing and Video Conferencing) • 컴퓨터 회의(Computer Conferencing) • 전자우편과 비디오텍스 (Electronic Mail and Videotex)	토플러나 네이스비트와는 달리 기술자체가 정치를 직접민주주의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

그러나, 위에서 밝힌 Toffler의 경우는 전자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전제 조건이었다. 즉, 직접 민주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전자 민주주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 유형을 가장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구분해 볼 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직접 민주주의 사례는 아테네의 민주주의이다. 직접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최대다수의 구성원이 정치과정에 최대한 참여하여 그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성이 지배하는 순수한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원칙을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물론 근대 민주주의 형성 이후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직접 민주주의는 기술

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스위스 일부 칸톤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 민주주의를 실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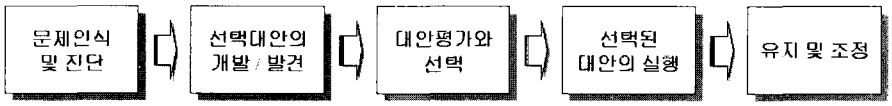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치이론에서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근대 사상가 중에는 Rousseau[15]가 직접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민주사회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ousseau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선거 등을 통해 간헐적이고 수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에의 직접참여는 민주주의에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3. 연구 모형

유권자, 정치인 등 개인에게 있어서 민주적 정치과정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론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MacCrimmon and Taylor[11]는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최종 대안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mon[17]의 탐색(Intelligence), 디자인(Design), 선택(Choice) 등 3단계를 바탕으로 Rubenstein and Haberstroh[16]와 Oh[14]의 모형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그림 3]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의사결정 차원에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즉 민주적 정치과정은 문제인식, 공공담론, 투표, 행동연대, 피드백 등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 민주주의를 이상 5단계와 결부시켜서 문제인식, 공공담론, 투표, 행동연대, 피드백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 의사결정 과정

〈표 2〉 민주적 정치과정

의사결정 과정	민주적 정치과정
• 문제인식 및 정의 문제란 자신의 현재상태와 원하는 상태가 차이가 날 때 발생.	• 문제인식 여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와 역행하는 사안 인식.
• 선택대안의 개발/발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올바로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찾음.	• 공공담론 인식된 사안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찾기 위해 여러 시민들과 활발한 토의 진행.
• 대안평가와 선택 각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여러가지 대안들을 개발하였다면 각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대안이 선택됨.	• 투표 시민들은 토의와 각 정보를 통해서 개발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기 위하여 투표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
• 실 행 선택된 대안은 실행되어야 한다. 낙태된(aborted) 의사결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음.	• 행동연대 선택된 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되어야 하며 연대적 성격을 지니게 됨.
• 통제 및 피드백 의사결정과정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사고의 틀이 형성되며 이는 재실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 피드백 선택된 대안과 시민들의 행동은 또 하나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전자매체는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과 같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되, 미디어 활용의 실태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V, 전화 등과 같은 올드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에 대립되는 개념이 뉴미디어로서, "올드 미디어와 새 기술, 미디어와 미디어가 융합·결합하여 채널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정보전달 시스템이거나 기존 미디어의 개념과 용량을 변환 또는 확대시키는 기술이나 통신·방송 시스템"을 말한다[1]. 기존 미디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서로 연계·복합되면서 새로 구성되는 정보 유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통신망, 위성 등이 상호 연결되면서 정보통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자매체라 함은 인터넷, 화상회의, PC통신, TV, CATV, 전화, FAX, ARS 등 8가지를 지칭하며, 민주적 정치과정 단계별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 [그림 4]에 묘사되어 있다. 세 번째 단계인 투표를 괄호한 이유는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투표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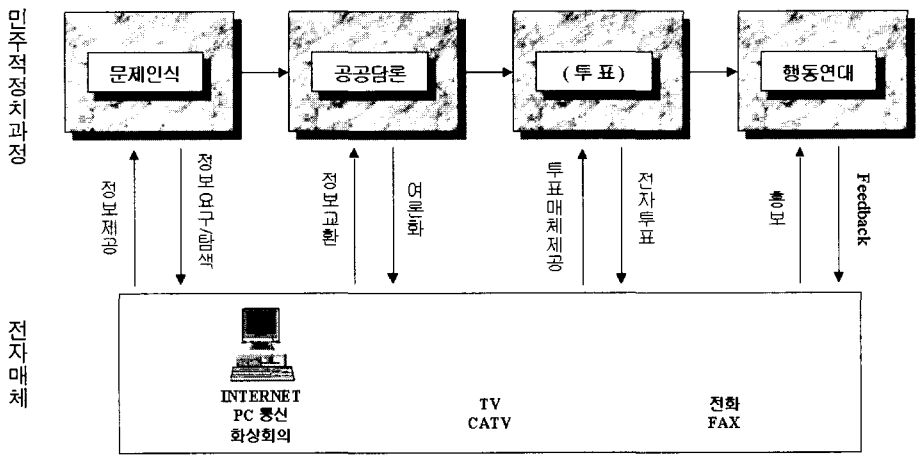
이상 5가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전자매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계는 공공담론 즉 토론과 투표 이상 2과정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 나타나 있다 (예컨데[2],[5],[21]).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토론과 투표 이상 2단계로 한정하여, 전자매체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로 한다.

4. 데이터 분석

전자민주주의 매체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담론 및 투표과정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정치인, 교수,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총 179매가 배포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172매로 회수율이 96%에 달하였다. 다만 중복답변 등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설문지가 25매가 되어서, 나머지 147매에 대한 통계 분석을 SPS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1 기초 분석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빈도 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많이 살고 있었다. 학력은 대재와 대학원졸 등 고학력이 주였다.



[그림 4] 민주적 정치과정과 전자매체

〈표 3〉 그룹별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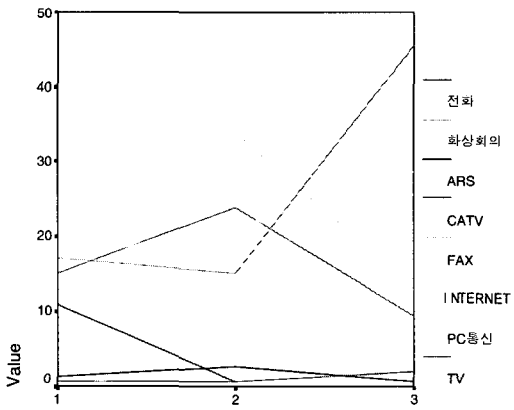
	구 성 비 율
성 별	남(70.1%), 여(29.9%)
나 이	20미만(5.4%), 20대(50.3%), 30대(19.0%), 40대(12.9%), 50대(8.9%), 60대(3.4%)
거주지역	특별시(59.9%), 광역시(22.4%), 시(17.7%)
거주권역	수도권(64.6%), 경기(4.1%), 강원(.7%), 충청(17.0%), 호남(7.5%), 영남(6.1%)
직 업	정치인(1.4), 공무원(2.7), 기업체(13.6), 교수(23.8), 학생(46.3), 언론인(.7), 전문가(4.8), 기타(6.8)
학 력	고졸(1.4), 전문대재/졸(2.7), 대재(38.1), 대졸(14.3), 대학원재(17.0), 대학원졸(26.5)
연 소 득	무(35.4), 1000만원이하(13.6), 1000-2000(16.3), 2000-3000(12.9), 3000-4000(10.2), 4000-5000(8.2), 5000이상(3.4)

다음으로 빈도 분석을 한 결과, 의미있는 변수들만 정리하면, 먼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84.4%에 달하였다. 인터넷 가입율은 46.9%로서, PC통신 가입율(55.1%)보다 약간 낮았다. E-mail 이용횟수는 평균적으로 주당 2.9회였으며, 전자매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응답은 5점 척도에서 3.82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토론이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94.2%나 되는 반면, 전자매체를 활용한 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68.5%에 그쳤다.

4.2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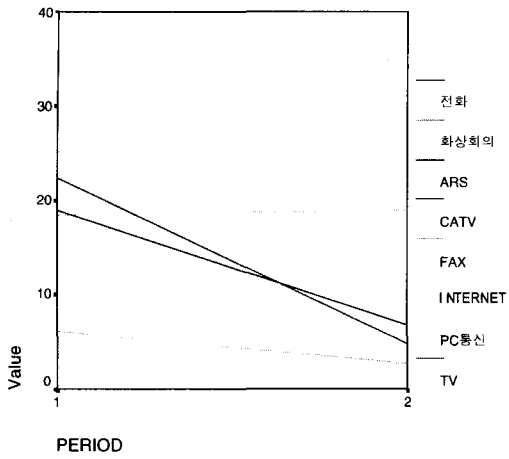
정치적 민주과정에서 토론과 투표 각 단계에 대하여, 바람직한 전자매체를 현재, 향후 10년후 이상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추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5]는 토론 단계에서 바람직한 전자매체로서 X축의 "1"은 선호하는 매체, "2"는 현재 바람직한 매체, "3"은 향후 바람직한 매체를 의미한다.

가장 선호하는 매체와 현재 가장 바람직한 매체 공히 PC통신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인터넷, 화상회의, TV 등이었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화상회의가 가장 바람직하고 인터넷이 그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토론을 위하여 바람직한 전자매체로 현재에 비하여 향후에는 화상회의, 인터넷이 급상승한 반면에 PC통신, TV는 대폭 하락하였다. 그 이유는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의 TV 기능을 화상회의가 대신하고, PC통신의 영역적인 한계때문에 이를 인터넷이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림 5〉 토론매체의 추세분석

[그림 6]은 투표 단계에서 바람직한 전자매체의 추세로서 X축의 "1"은 현재 바람직한 투표매체, "2"는 향후 바람직한 투표매체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현재는 전화, ARS, PC통신, 인터넷 등의 순이었으나, 향후에는 인터넷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PC통신 등이었다. 투표매체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면 ARS, 전화가 감소한만큼 인터넷, PC통신이 증가하였다. 즉 향후에는 인터넷이 투표매체로서 ARS나 전화를 대체할 전망이다.



[그림 6] 투표매체의 추세분석

4.3 선호도에 의한 효과 분석

전자토론이나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도입전략은 이에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토론 및 전자투표에 긍정적인 응답자와 부정적인 응답자로 분리하여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바람직한 전자토론 매체를 보면, 전자토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들은 PC통신을 선호한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TV를 선호하였다($p=0.021$). 즉 전자토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자매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편한 TV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향후에 바람직한 토론 매체로는 전자토론을 찬성하는 경우나 반대하는 경우나 공히 화상회의, 인터넷을 선호하였다. 비록 전자토론을 반대할지라도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투표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자매체를 통한 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8.5%였는데, 이는 전자투표에 의한 비밀보장 여부 등과 같은 불안의 표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현재 바람직한 매체로 전화, PC통신, ARS,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향후 바람직한 매체로는 인터넷, PC통신 등이었다. 반면에 전자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현재는 PC통신, ARS가 바람직하지만 향후에는 인터넷, PC통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향후에 바람직한 투표매체로서 전자투표를 선호하는 경우는 인터넷이 압도적이었으나, 선호하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과 PC통신이 비슷하였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과 PC통신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토론, 투표 이상 2단계에 대하여 인터넷, 화상회의, PC통신, TV, CATV, 전화, FAX, ARS 등과 같은 전자매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자토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반면에 전자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약간 높은 정도에 그쳐서, 투표시 기밀유지 등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었다.

토론이나 투표 공히 향후에는 인터넷이 중요한 전자매체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연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Netian과 같이 인터넷의 무료 보급은 물론이고 보안, 인터넷 예의 등과 같이 관련된 주제들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토론, 전자투표 각각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 바람직한 매체를 추세 분석시 특히 이에 부정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자토론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TV였으나 향후에는 화상회의, 인터넷 등으로 바뀌었다. 우선 편한 TV를 현재 선호하나 향후에는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이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매체는 ARS, PC통신이었으나 향후에는 인터넷, PC통신이었다. 전자투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정보화에 한 템포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전자토론이나 전자투표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전자민주주의 도입 전략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을 무료로 보급하거나 보안상의 문제를 불식시켜 전자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전자토론시 이에 대한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화상회의는 가장 선호되는 매체인바, 이는 TV와 유사하여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 없고 거부반응도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정부가 정보초고속도로 구축시 화상회의에 대한 연계 등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수거된 설문지의 수가 한정되어,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의도를 분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표본 수가 적은 그룹에 집중적으로 설문지를 추가로 배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자민주주의 도입 전략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우룡, "뉴미디어: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한국방송공사, 1990.

[2] Abramson, Jeffrey B., F. Christopher Arterton and Gary R. Orren, *The Electronic Commonwealth: The Impact of New Media Technologies on Democratic Politics*,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8.

[3] Anderson, Stephen J.,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Democracy: Japan and Asia-Pacific Region Respond to the Internet," 정보화시대 한국의 정치과정: 정치커뮤니케이션, 여론형성과 인터네트, 사단법인 전자민주주의 연구원 제1회 세미나, 1997년 4월 24일.

[4] Arterton, F. Christopher, *Teledemocracy*, Sage, 1987.

[5] Browning, Graeme, "Updating Electronic Democracy," *Database*, June/July 1997, pp.47-54.

[6] Dahl, Robert, *Controlling Nuclear Weapons*,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5.

[7] Elgin, Duane, "Revitalizing Democracy through Electronic Town Meetings," *Spectrum*, Spring 1993.

[8] Hacker, Kenneth L., *Missing Links in the Evolution of Electronic Democratization*, London: SAGE, 1996.

[9] Laudon, Kenneth C.,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aeger, 1977.

[10] London, Scott, "Electronic Democracy," 1994

[11] MacCrimmon, K.R. & Taylor, R.M.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RandMcNally, 1976.

[12] McLean, Iain, *Democracy and New Technology*, Polity Press, Cambridge, UK, 1989.

[13] Naisbitt, John, *Megatrends*, Warner, 1984.

[14] Oh, J. I., *The Strategic Cho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Decision Analysis Approach*,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1992.

[15]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st*, Edited and Translated by G.D.H. Cole. J.M. Dent & Sons, 1973.

[16] Rubenstein, A. A. and C. J. Haberstroh (Eds.), *Some Theories of Organization*, Richard D. Irwin, Homewood, IL, 1965.

[17] Simon, H. A., *The New Science of Management Decision*,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60.

[18] Time, May 1995, Special Issue, pp.55-56.

[19]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1980.

[20] Winner, Langdon, "Mythinformation," Carl Mitcham and Alois Huning, 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II*, 269-289,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 1986.

[21] Wright, Robert, "Hyperdemocracy," *Times*, January 23, 1995, pp.37-42.

[22] Ytterstad, Pal and Richard T. Watson, "Teledemocrac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Enhance Political Work," *MIS Quarterly* (20, 3), Septeber 1996, 347.

[23] http://www.west.net/~insight/london/ed.html

[24] http://www.democracy.or.kr/